

시
멘
트
業
界
政
府
그
리
고
景
氣
變
動

國內 시멘트工業의 發展을 爲한 巨視的 觀測

中央日報社 論說委員 李 圭 東

美國에서는 女子를 顧客으로 하는 事業은 景氣變動이라는 資本主義經濟의 體質的 缺陷에서 派生되는 波動을 겪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資本制經濟가 一定한 週期를 가지고 浮沈한다는 이른바 景氣變動은 近來 經濟政策의 發達로 상당히 회피될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것이 完全히 拂拭될수 없다는 것도 또한 사실인 것 같다.

「시멘트」業界는 女子와 가장 멀다는 뜻에서도 男性的인 産業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景氣變動에 敏感한 産業이라고 筆者는 믿고 있다. 다른 建設物資도 그러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木材供給能力이 弱한 나라에서는 建築 및 建設活動에 特히 鐵筋과 「시멘트」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는 宿命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므로, 「시멘트」業界는 建築活動狀況에 따라서 一喜一悲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시멘트」業界의 立場만을 생각한다면 各種建設活動이 活潑할수록 好景氣를 驅歌하게 될 것이므로 政府로 하여금 公共事業投資를 마구 벌리도록 勸導이질을 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오늘날 韓國은 經濟를 計劃的으로 開發하는데 熱을 올리고 있는 것이며 그 德澤으로 「시멘트」業界는 好景氣속에 지난날을 보내왔다고 믿어진다. 莫大한 投資活動으로 「시멘트」需要가 해마다 20% 이상이나 增加하고 있는 過程에서 「시멘트」業界는 景氣變動현상을 豫想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더우기 지난날에는 「시멘트」의 國內生産이 미미했기 때문에 「시멘트」需要의 大部分을 輸入에 依存했던 것이며 「시멘트」를 求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때도 있었던 點에서 볼때 「시멘트」는 상당히 收支맞는 商品중의 하나이었다 할 것이다. 統計를 보면 오늘날의 「시멘트」生産能力은 年産 350萬噸水準이라 하므로 10年前에 比하면 실로 10倍의 成長을 이룩하리만큼 「시멘트」業界는 發展한 것이다. 이러한 飛躍的인 業界의 發

展에도 불구하고 「시멘트」供給은 國內需要를 充足시키지 못했으며 67年만 하더라도 「시멘트」輸入은 53萬餘噸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68年중에도 政府는 「시멘트」의 國內供給이 需要에 比해서 80萬噸정도가 不足한 것으로 豫測하고 이를 延拂免稅輸入으로 들여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業界는 國內供給不足을 20萬噸정도로 推定하고 있으며 延拂免稅輸入을 反對하고 公平한 競爭條件을 갖추어달라고 政府에 建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政府나 業界가 다같이 國內供給이 需要에 未達될 것이라는 豫測을 하고 있다면 「시멘트」業界는 趨勢上으로 보아 아직도, 有利性을 內包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다만 「시멘트」價格變動이 建設費와 物價指數에 미치는 影響을 考慮해서 政府가 告示價格 내지 協定價格으로 「시멘트」값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시멘트」業界가 不滿을 吐露하고 있는 것이다.

「시멘트」業界의 主張에 따르면 「시멘트」값은 지난 3年間 驛頭價格으로 袋當 2백3원에 묶여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協定價格이 3년간 지속되는 가운데 鐵道運賃 電氣料金 燃料代 勞賃 등은 해마다 오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멘트」業界가 不平을 하는 것도 當然하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바꾸어 생각한다면 協定價格이 3年間이나 固定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멘트」業界가 오늘날까지 倒産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韓國經濟의 실정으로써 보아 그 무엇인가를 짐작케 하는 點도 없지 않은 것이다. 해마다 電氣料金이나 鐵道運賃이 몇십%씩 오르고 있으며 아울러 勞賃 등 投入費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큰 不滿없이 「시멘트」業界가 發展을 거듭한 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過去에 相當히 利潤率 이 높았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짐작이 가는 것이다.

지난 3年間은 政府의 價格政策 때문에 利潤率 이 低落한 期間이라 할 수 있으며 67년부터는 利潤率低落狀態가 臨界線에 왔기 때문에 「시멘트」業界가 不平을 늘어놓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면 「시멘트」業界는 왜 價格을 引上시키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第3者의 疑問에 逢着할 것

이다. 물론 政府가 許可해주지 않으니까 올리지 못한다는 것이 公式的인 답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시멘트」業界가 出血(?)的인 事業을 계속해도 이를 是正하는데 너무나 無力한 것을 짐작하기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二

經濟學者로서 世界的으로 알려진 「P. 사무엘슨」이라는 분이 있다. 「사무엘슨」이 美國의 鐵鋼工業界에 加한 批判은 우리나라의 「시멘트」工業界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美國의 鐵鋼工業은 오늘날 두가지 苦惱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는 國內勞賃의 上昇壓力이고 다른 하나는 日本 등 他先進國의 對美鐵鋼輸出攻勢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두가지 挑戰中에서 前者를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나 後者は 政府가 協調하면 간단히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美國의 鐵鋼業者들은 鐵鋼材輸入制限과 關稅率引上等 保護措置를 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鐵鋼業界의 要求에 대해서 「사무엘슨」의 評價는 매우 示唆的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業界人士들도 귀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굳게 筆者는 믿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사무엘슨」은 『政府의 保護를 要請한다는 것은 곧 政府의 支配를 自招하는 行爲』라고 斷定하고 있는 것이다. 政府의 支援과 保護를 받을수록 業界는 對政府立場이 弱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窮極의으로는 政府의 支配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美國과 같이 發達된 資本制經濟와 行政體制下에서도 政府의 保護와 支援이 企業의 政府支配를 誘發할 것이라는 點에 業界人士는 注目할 心要性이 있을 것이다. 外形上으로는 完全히 政治 및 行政과 經濟가 分離되어 있는 完熟한 資本制經濟下에서도 政府의 支援과 保護가 企業의 自主性 自律性을 拘束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것인가 推理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시멘트」業界가 自立하고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는 筆者로서 아는바 없

다. 그러나 「사뮤엘슨」의 論法을 빌린다면 오늘의 「시멘트」業界가 自律性을 갖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 않을 수 없다. 外資導入이라는 政府의 支援施設資金融資라는 相對的 低利金融 特惠業體를 위한 道路 港灣投資等 政府의 全的인 支援없이 오늘의 「시멘트」工業이 成立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政府의 支援속에서 成長한 「시멘트」業界가 아무리 肥大해진다 하더라도, 發言權을 갖기 어려운 것은 自明한 것이며 事理의 當然한 귀결로 政府의 눈치만 살피는 立場에 놓이는 것이다.

대체로 資本制經濟는 企業活動의 自由속에서 繁榮과 安定을 누리는 것을 하나의 理想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自由는 企業側의 努力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決코 政府나 社會가 提供하는 것은 아님을 業界는 깊이 認識해야 할 것이다. 솔직히 말하여 實力以上의 事業擴張으로 一獲千金하려는 企業風土가 이 나라에서 사라지지 않는 限 政府와 企業사이는 支配와 屈從이라는 函數關係속에 있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때문에 腐敗行爲가 存續하게 되는 것으로 筆者는 믿고 있다.

自己實力 이상의 事業을 하게 되니까 政府의 支援이 必要한 것이며 金融機關에 全的으로 依存해야 한다. 이러한 依存性은 또한 政府와 結托하면 一獲千金 할 수 있다는 思想을 一般化시키게 되는 것이며 그것에 또한 실증되는 例가 非一非再했던 것도 숨길 수 없다. 이러한 傾向은 결국 業界間의 競爭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더욱 많은 政府支援을 위한 腐敗行爲를 誘發시키는 契機를 마련해 가는 것이다.

우리의 財界를 살펴보면 그러한 傾向은 너무나 뚜렷하다. 外國의 경우 같으면 莫大한 影響力을 發揮할 財閥級人士들이 韓國의 경우에는 초라하게 政府의 눈치를 살피는 立場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立場에서 脫皮하고 自由企業으로서의 自律性을 恢復하려 한다면 業界는 두가지 條件을 차츰 形成시켜 가야할 것이다.

그 하나는 自己實力으로 企業을 經營하는 堅實主義의 確立이다. 아무리 눈 앞에 보이는 利得이 크다 하더라도 그에 及及해서 原則을 벗어 나는 行爲를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小利를 위

해서 지나친 支援이나 保護를 要請하는 것은 企業으로서의 自己拘束行爲임을 看過해서는 아니 된다.

더우기 實力以上의 事業擴張은 自律性 喪失뿐만 아니라 景氣變動에 매우 弱해져서 조그만 衝擊이나 不況에도 倒産으로 陷入한다는 經濟鐵則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時宜에 지나치게 便乘하려는 傾向을 스스로 警戒해야 할 것이다. 지난날 三粉暴利騷動에 「시멘트」業界가 끼었다는 사실을 業界는 스스로 反省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需給이 맞지 않아 價格上昇이 불가피한 狀態가 展開된다 하더라도, 이를 利用하려 들면 그만큼 社會的인 反撥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은 社會的인 干涉을 自招하는 일이 된다는 事實을 認定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企業으로서의 自律性을 提高시키려 한다면 正常利潤을 堅實히 追求하므로써 社會的인 信賴性을 높일 必要性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시멘트」業界가 凍結된 價格으로 3年間을 견디고 있어도 社會는 「시멘트」業界에 커다란 同情을 보내지 않고 있음을 業界는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왜 그렇게 되었는 가를 筆者가 分明히 알리는 없지만 해마다 한두번씩 波動을 일으킨 「시멘트」業界의 因果應報가 아닌가 筆者는 推測하고 있을 뿐이다.

季節的인 盛需期를 利用해서 收支를 맞추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社會는 「시멘트」業界의 誠實性을 疑心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眞實을 이야기해도 社會가 그를 믿어주지 않는 傾向이 있지는 않는가 「시멘트」業界는 스스로 判斷해 보는 것도 無意味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단 「시멘트」業界에 局限되는 것은 아니지만 業界가 堅實主義와 正常利潤追求라는 事業의 正道를 걸어가지 않는다면 결국 社會의 不信과 政府干涉이란 陷穽에 빠지게 되고 일단 그러한 陷穽에 빠지고 나서는 아무리 經濟的으로 正當한 要求도 社會가 認定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에서 「시멘트」業界가 自律性을 設使 발휘해서 價格引上을 斷行한다 해도 그것은 곧 暴利行爲로 看做되기 쉬울 것이며 오히려 批判받을 可能性조차 있을 것이다. 아무리 「시멘트」業界가 研究機關의 生産費調査를 들고 나와

도, 그것이 제대로 認定되지 못하는 狀況이라던 이미 社會的 信賴性을 너무나 喪失했다는 反應으로 鮮釋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거듭 말하지만 非正常的인 길을 벗어나서 社會的으로 信賴性을 恢復시키는 作業이 서둘러져야 한다는 것에 「시멘트」業界뿐만 아니라 이나라 企業全體의 當面課題라 함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企業이 社會的 信賴性을 恢復하고 나서 自律性을 발휘한다면 社會는 企業行爲를 敵對視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때문에 景氣狀況에 따라서 企業이 伸縮的으로 對應할 수 있는 餘地도 커지는 것이므로 長期的으로 본다면 오히려 正道를 걷는 것이 業界를 위해서도 결코 不利하지 않을 것이다.

三

기왕 暴氣變動문제가 나왔으니 「시멘트」業界의 景氣에 對해서도 筆者나름의 생각을 펴보기로 한다.

韓國經濟의 歷史에 眞正한 意味에서 본 景氣變動이 있었던 가는 確實하지 않지만 筆者의 推測으로는 아마도 지난날에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난날에 景氣變動현상이 노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앞으로도 發生되지 않는다는 保障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經濟規模가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츰 資本制工業化를 成立시키고 있으므로 固有한 의미에서의 景氣變動현상이 앞으로 틀림없이 나타날 것임을 推定하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제 戰後復興期도 지났고 相當한 工業施設도 가추었으므로 앞으로 平均的이고도 持續的인 需要增大를 期待하기는 어려운 때가 온 것이다. 理論上으로 본다면 投資規模의 增加率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景氣는 後退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며 우리도 投資增加率을 지난날과 같은 率로 持續시키기 어려운 處地에 지금 陷入하고 있다고 筆者는 믿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오늘날 輸入需要의 抑制論이나 換率引上論에 提起되고 있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으며 激增一路에 있는 租稅壓力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經濟가 膨脹을 거듭하면 過熱되게

마련이고 景氣가 過熱되면 輸出鈍化 輸入增加에 따른 國際收支逆調현상에 부딪치게 된다. 國際收支逆調는 長期間 持續될 性質의 것이 아니며 그를 是正하는 길은 投資率의 感退와 成長率의 後退밖에 없는 것이다.

韓國經濟도 지금 그러한 後退를 불가피하게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筆者의 생각이며 따라서 韓國經濟도 歷史上 처음으로 景氣變動현상을 경험하게 될날도 멀지 않은 것이다.

景氣後退 過程은 建設需要 내지 發注量의 後退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그 餘波는 제일 먼저 鐵鋼과 「시멘트」分野에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鐵鋼材는 輸入依存率이 높으므로 아직은 景氣後退에 따른 打擊을 輸入縮少로 相殺시킬 수 있지만 「시멘트」는 國內供給率이 壓倒的으로 높기 때문에 景氣後退는 「시멘트」販賣不振과 滯貨增加로 直結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만일 景氣後退가 진실로 가까운 將來에 具體化된다면 오늘의 「시멘트」業界의 實力으로는 勘當하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外資導入으로 企業規模를 擴大했기 때문에 需要不足에 適應하는데 따르는 負擔이 높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負債比率이 지나치게 높아져 稼働率과 相關 없는 間接費인 利子負擔率이 높기 때문이다. 그 위에 外資의 元金償還壓力이 있고 換「리스크」에서 오는 負債規模의 擴大可能性조차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重荷속에서 「시멘트」業界가 景氣後退현상을 겪게 된다면 그것은 倒産으로 이르는 길 이 될 可能性이 짙다는 點을 業界 스스로 깊이 檢討하고 그에 對應할 對備策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오늘날과 같이 發達된 經濟政策手段으로는 破局的인 景氣後退가 惹起되도록 經濟를 放置해 두지는 않을 것이므로 지나치게 念慮하는 것도 禁物이지만 그렇다고 經濟의 本質的인 矛盾을 經濟政策으로 完全히 「커버」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景氣後退의 程度를 지금부터 豫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아무리 輕微한 後退현상이라 하더라도 오늘의 「시멘트」業界로서는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點만은 看過할 수 없을 것이다.